

별쇄본

한국진로교육학회 제50차 춘계학술대회

성공적 경력전환을 위한 생애단계별 성인 진로교육 전략

- 포스터발표 -

일시 : 2020. 07. 10. Fri 13:00~18:30

장소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동 101호

주최 :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www.krivet.ac.kr

주관 :  한국진로교육학회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 중장년의 경력전환 연구 동향 분석

정 성 지 박 보 람[†]

서울대학교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장년층 진입에 따라 인구구조 측면에서 중장년의 전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뒤 경제적 목적 외에도 사회적 기여 등의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재취업, 전직, 앙코르 일자리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00년대 들어 관련된 연구와 정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의 경력전환의 개념과 특성, 연구 동향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분석 및 조망하는 연구는 미진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과 의미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중장년 경력전환 관련 연구의 논의 양상과 키워드 간 연관성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 및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중장년의 경력전환 연구의 동향을 분석했을 때, 특정 중장년층 대상(준고령, 중년남성, 50+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고찰과 함께 다양한 이슈(능력개발, 퇴직, 건강, 복지, 가정)를 기반으로 7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특히 중년 남성의 건강과 소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다가 2010년대 들어 활발해지면서 경제(보험/연금), 복지(가족 및 사회적 지지), 경력/학습(재취업 준비) 지원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며, 특히 여성의 경력개발 연구도 비중이 증가하였다.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했을 때, 경력전환에 있어 직업능력개발뿐 아니라 생애 과업의 다양한 이슈가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공통된 이슈에서도 긍정적인 심리(만족)와 부정적인 심리(불안, 위기)가 공존함을 발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중장년 경력전환에 관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중장년, 경력 전환, 동향분석, 연구 동향, 정책 동향, 토픽모델링

[†] 교신저자 : 박보람, 서울대학교, ram1224@snu.ac.kr

서울시 중장년의 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의 숙련도 변화에 따른 업종 및 고용형태 이동 분석

서 예 린 유 현 주* 고 귀 영 민 지 식 배 수 현 박 자 경
서울대학교

이 연구는 서울시 50+재단에서 조사한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직업이력 및 경제활동'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양상을 숙련도 변화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중장년 경제활동의 변화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된 일자리와 재취업 일자의 숙련도 변화 유형별로 업종 이동과 고용 형태 이동을 분석하여 중장년층의 일자리 이동 특성을 밝히고 중장년층을 위한 진로와 취업 등 관련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숙련도의 변화 유형 분석 결과, 고숙련직종의 주된 일자리에 있었던 중장년은 151명(15.5%)이었으며 중숙련직종의 주된 일자리에 있었던 중장년은 372명(38.2%)이었고, 저숙련직종의 주된 일자리에 있었던 중장년은 451명(46.3%)으로 나타나 중장년의 대부분은 주된 일자리에서 저숙련직종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주된 일자리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일자리에 따라 숙련도 변화 유형을 구분한 결과 숙련상승형, 숙련하향형, 고숙련유지형, 중숙련유지형, 저숙련유지형의 5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다음으로 숙련도 변화에 따른 업종 이동의 분석 결과 숙련상승형은 주된일자리가 기타 서비스업인 경우 50%가 업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된 일자리가 농림어업 및 제조업 또는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이었던 경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높았고, 주된 일자리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었던 경우 기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큰 것이 확인되었다. 숙련하향형 유형에서는 주된일자리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인 경우 64.4%가 업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주된 일자리의 업종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대부분 이동하였다. 고숙련 유지형과 중숙련 유지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업종 유지의 경향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였으며, 저숙련 유지형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이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이동양상을 분석한 결과 숙련도 변화 유형에 따른 고용형태 이동 양상에서도 유형별로 다른 특징을 나타냈는데, 업종과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중숙련유지형만재취업 일자의 정규직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숙련하향형과 고숙련유지형은 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숙련하향형과 저숙련유지형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양분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서울시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의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각종 취업지원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년이퇴직 전부터 성공적인 경력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시뿐만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중장년 의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 이행형태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과 같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중장년재취업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서울시 중장년의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의 이행에 관한 현상 파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이동에 대한 원인 내지 동인을퇴직 당시 소득, 부양가족 수, 자녀 연령, 자아실현 의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연구는 종단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재취업 일자리로의 숙련도의 변화에 따른 업종 및 고용형태 이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틀을 바탕으로 하여 소득, 직업지위, 만족도 등을 종합한 일자리 질을 고려한 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중장년층, 주된 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숙련도 변화, 업종 이동, 고용형태 이동

대학생의 진로결정 검사도구 개발

이 현 민 정 진 철†

서울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결정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진로결정 관련 이론 및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적합성, 구체성, 확산성의 3개의 구인을 도출하였고, 기존 문항 활용, 대학생 인터뷰 및 문항 검토를 통해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대학생 34명 대상 안면타당도를 검증하고, 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문항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진로교육 전공 교수 5인 대상으로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최종 문항 신뢰도 및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대학생 5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상관관계 분석, 문항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기준치 이상이었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적합도를 충족하였다. 본조사 결과에 따라 진로결정 검사도구로 적합성 5문항, 구체성 5문항, 확산성 5문항의 총 15문항을 확정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진로결정 검사도구의 한계를 제시하고 진로결정의 다차원적 속성을 중심으로 하위구인을 적합성, 구체성, 확산성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연구 및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진로결정 도구, 진로결정, 도구개발, 진로교육, 대학생, undergraduate career decision scale, career decision, scale development, career education, undergraduate

† 교신저자 : 정진철, 서울대학교, vince88@snu.ac.kr

심리적 거리 조절에 따른 여성의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 생성 차이 분석

이 자 명[†]

한국방송통신대

많은 여성들이 생애발달 단계에서 출산과 육아를 수행하면서 가정 내의 역할들 간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일-가족 다중역할갈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 및 심리적 부담이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 속에서 경험하는 여성의 지각을 이해하고 갈등 상황에 대한 반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성의 일-가족 역할갈등상황에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한 방법으로써 심리적 거리 조절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에서 제안한 심리적 거리 조절 조건을 적용하여 시나리오 자극을 활용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이 가까운 집단에 비해 다중역할갈등상황에서 대안 생성의 유창성 및 융통성에서 우세하였다. 또한 대안의 내용 분석을 통한 경향성 확인에서 또한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대처가 높고 부적응적 대처 양식의 응답률은 낮았다.

본 연구는 여성의 생애단계 중 출산 및 육아 병행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여성의 성공적 경력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추후 연구에 대해 제안할 점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주제어 :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심리적 거리, 해석수준이론, 대안 생성, 유창성, 융통성, 대처양식

[†] 교신저자 : 이자명, 한국방송통신대, jmyi1012@hanmail.net

취업준비생의 취업준비 경험 및 심리적 지원 요구

이 자 명[†]

한국방송통신대

본 연구는 취업준비생의 경험을 알아보고 이들의 심리적 지원 요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명의 취업준비생을 심층면담한 후, 합의적 질적 분석(CQR)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8개의 범주에서 28개 영역 및 그에 따른 64개의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내용에 따라 빈도 또한 분석되었다. 취업준비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신체·정서·인지,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가족 외 관계·가족 내 관계·고용환경 등이 나타났으며, 이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는 효과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효과적인 대처로는 자기개발·여가생활·정서적 지지가 나온 반면, 대외 활동·여가생활·주변인의 조언·패인 반추·미신에 의 의지와 같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대처 또한 다수 있었다. 취업 준비생의 심리적 지원요구에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로는 정서적 지원요구·상호작용·소속이 없다는 상황적 특수성이 강조되었으며, 접근성·비용·내용적 측면에서 심리적 지원과 관련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청년들이 소속을 상실한 후 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심리적 지원 요구를 확인함으로써 국내 취업 준비생의 진로·취업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에 대해 논하였다.

주제어 : 취업준비생, 소속감, 취업스트레스, 심리적 지원

[†] 교신저자 : 이자명, 한국방송통신대, jmyi1012@hanmail.net

은퇴자 적응 연구 동향 분석 : 2000-2019년 발간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이 자 명†

한국방송통신대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발간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중 은퇴자 적응과 관련한 연구물을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s) 방법에 따라 선정한 후, 연도별 발행 현황, 연구목적,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은퇴자 적응 연구의 발전 과정과 주요 쟁점을 알아보고 미래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내 근로자의 생애 주요 경험인 은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은퇴 적응과 새로운 경력 개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물 분류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구물 선정 및 분석 기준 설정, 분석과 결과 평정 과정에 전문가 평정단이 함께 함으로써 연구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20년 간 수록된 은퇴자 적응 관련 논문은 총 120편이었으며, 2010년을 전후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은퇴자 적응 연구 중 이론적 목적을 가진 논문은 총 13건으로 전체의 10.8%, 실증적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107건(89.2%)였다. 다음으로 연구를 위해 선정된 논문을 유사 주제별로 분류한 후, 각 카테고리 별로 주제를 명명하였는데 총 11개의 주제 범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은퇴준비, 가족관계, 건강, 생활만족, 적응과정, 진로, 경제상태, 배우자 적응, 은퇴자 유형, 귀농, 여가 등이다. 네 번째, 연구대상 분석 결과, 인적대상은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114건이었고, 물적대상을 다룬 논문은 6건(5%)이었다. 인적대상은 다시 은퇴 관련 주제, 직업, 성별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연구방법 분류는 자료분석 유형과 연구설계 장면 및 자료수집기간 유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분석 유형은 경험연구와 이론연구였으며, 각각 전체 논문의 96.7%, 3.3%로 집계되었다. 연구설계 장면은 현장과 실험실 중 모두 현장이었으며, 자료수집 기간 유형은 한 시점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연구가 전체의 96.6%(112건), 두 시점 이상에서 자료가 수집된 연구는 4건(3.4%)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은퇴자, 은퇴자 적응, 연구동향, 체계적 문헌고찰

† 교신저자 : 이자명, 한국방송통신대, jmyi1012@hanmail.net

취업 면접지도를 위한 문제은행시스템 구축 방안 탐색

신 일 호† * 어 윤 경**

세종여자고등학교* 공주대학교**

최근 특성화고 졸업생의 채용 면접 방식이 인성면접에서 직무 중심의 블라인드 면접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취업담당교사와 취업지원관은 새로운 NCS 면접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즉, 교사에서 학생으로의 단방향식 면접지도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쌍방향적인 면접지원 프로그램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진로 면접 능력을 향상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기업체 면접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취업 면접지도를 위한 문제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Web 기반 진로상담 면접 시스템 개발을 위해 교사, 학생, 기업의 요구분석 및 사전조사를 통해 교사·학생, 학생·학생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취업면접 문제은행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한 후, 문제은행 시스템 활용 후 실제 사용자인 학생들의 면접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Web 기반 면접 문제은행 시스템의 취업·진로 상담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 Web 기반 면접 시스템, 문제은행, 면접지도

† 교신저자 : 신일호, 세종여자고등학교, sunest@empas.com